

세상에 드러난 지 2년도 채 안 된 국내 숨은 여행지 6선

국내 여행 마니아 추천 1576곳 중 선정

세상은 넓고 갈 곳은 많다. 국내도 마찬가지다. 겨울여행으로 국내를 벗어나 해외로 눈을 돌렸다면, 개장한 지 채 2년도 되지 않은 겨울철 숨은 관광지를 주목해보자. 모르고 지나치기엔 흥미로운 이야기와 다양한 매력이 넘치는 곳들이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10월 온라인에서 여행 마니아들로부터 1576곳의 숨은 여행지를 추천받았다. 그 중 선정위원회를 거쳐, 6곳의 '겨울철 숨은관광지'를 선정했다.

◇금단의 땅으로 내린 첫걸음, 용산공원갤러리

지난해 11월 30일 개관한 용산공원갤러리는 용산기지과 한강대로를 사이에 둔 캠프킴 부지에 있다. 만조천이 앞에 흐르고 둔지산이 뒤를 받친 용산기지 일대는 조선시대부터 물류의 중심이자 전략적 요충지였다. 임오군란을 벌이던 우리 땅에 들어온 일본군은 이곳에 자신들의 아욕을 실현할 병참기지를 건설했다.

용산의 외국인 주둔은 그렇게 시작됐다. 용산기지는 한국전쟁을 겪으며 바통이 미군에게 넘어갔고, 다시 66년이 흘렀다. 용산기지 반환에 앞서 일반에 개방한 용산공원갤러리는 약 110년 동안 굳게 닫혀 있던 금단의 땅으로 내린 첫걸음이다.

아름과 상처로 얼룩진 역사를 넘어 치유와 희망을 꿈꾸게 하는 길이기때문에,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용산공원갤러리 관람료는 없으며,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7시, 휴관일은 일·월요일과 공휴일이다. 일 반차량 주차는 되지 않는다.

◇젊은 달과 붉은 파빌리온 그리고 목성, 젊은달와 이파크

지난 6월 젊은달와이파크는 2019년 6월 강원 영월군 주천면에 개관한 복합 문화 공간이다. 강릉 하슬라아트월드를 만든 최옥영 작가가 옛 숲박물관을 개보수했는데, 구조를 크게 변경하지 않으면서 완전히 새로운 장소를 만들었다.

공간은 11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특히 최 작가의 대형 작품과 옛 숲박물관을 품듯이 들어선 붉은파빌리온, 바람의길 등이 변화를 주도한다.

최옥영 작가의 '붉은 대나무'가 맞이하는 진입로가 대표적이다. 하늘을 찌를 듯한 붉은색 금속 파이프는 벌써 젊은달와이파크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6시, 휴관일은 월요일이다. 입장료는 어른·청소년 1만 5000원, 어린이(36개월~12세) 1만원이다. 특별관 관람권(5000원)을 추가로 구입하면 붉은파빌리온 II의 '스파이더 웹 플레이 스페이스'를 놀이 시설처럼 즐길 수 있다.

◇카멜레온 같은 복합 문화 공간, 서천 장항도시탐험

충남 서천군에 있는 장항도시탐험역은 장항역을



용산공원갤러리

현대적으로 리모델링한 복합 문화 공간이다. 보는 각도와 빛의 양에 따라 다른 색으로 보이는 외관 덕분에, 2019년 5월 개관 때부터 눈길을 끌었다. 이후 재즈와 클래식 등 문화 공연을 수시로 기획해 장항 주민에게 사랑받고 있다.

장항역은 1930년대 초에 열차 운행을 시작한 이래 장항읍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했으나, 2008년 여객열차 운행이 중단되고 2017년까지 화물역으로 운영했다.

먼저 돌아볼 곳은 '장항이야기뮤지엄'으로, 장항역과 장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엿볼 수 있다. 여기서 계단으로 올라가면 장항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도시탐험전망대'가 기다린다.

2층에 자리한 '도시탐험카페'는 주민과 여행자가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1층에는 놀이와 체험이 가능한 '어린이공간'이 있어 가족 단위 방문자가 적지 않다.

장항도시탐험역 이용 시간은 오전 11시~오후 8시(토요일 오후 9시, 월요일 휴무), 입장료와 주차는 무료다.

◇전원 풍경에 예술을 입힌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아담원'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과 아담원은 '춘향의 고장' 남원에 예술, 전원 풍경의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곳들이다. 힐링 공간인 두 곳 모두 자리산이 등진 배경이다.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은 남원 출신 김병종 작가의 대표작을 기증받아 2018년 3월 개관했다. 미술관은 자연을 감상하고 마음을 치유하는 복합 문화 공간을 지향한다.

입구에 북카페 '화첩기행'이 있고, 3개 갤러리를 갖췄다. 김병종 작가의 작품을 상설 전시 중이며, 남원 지역 미술 작가전 '남원 미술, 요즘'이 2020년 1월 27일까지 열린다. 장밖으로 자리산 능선이 보이는 갤러리도 있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6시이고 월요일과 1월 1일, 설날·추석 당일은 쉰다. 입장료와 주차는 무료다.

한편, 이백면에는 정원과 카페가 어우러진 아담원이 있다.

2018년 11월 문을 연 이곳은 조경이 멋진 단층 카



젊은달와이파크의 강렬한 첫인상 '붉은대나무'



서천 장항역 2층 도시탐험카페. 온통 핑크색으로 가득한 특별한 공간이다

페가 인상적이다. 통유리 너머로 잔디 정원과 지리산이 펼쳐진다. 산책로 '아담길'은 죽연지까지 이어지며, 사색을 돕는 야외 테이블이 마련돼 있고, 갓 구운 빵을 판매하는 카페도 있다.

겨울철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이고, 월·화요일은 쉰다. 입장료(유료 한 잔 포함)는 어른 8000원, 청소년 5000원, 미취학 어린이는 무료다.

◇금강소나무 숲에 둘러싸여·울진 금강송에코리움

지난 7월 울진에 문을 연 금강송에코리움은 금강소나무 숲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일반 소나무와 달리 휘지 않고 하늘로 쭉쭉 뻗는 금강소나무는 예부터 공경을 짓는 데 사용됐다.

금강송에코리움은 금강소나무를 테마로 한 체험형 산림 휴양 시설로, 금강송테마전시관과 금강송치유센터, 찻집방, 유르트(유목민이 사용하는 천막, 수련동(약 150평 숙박 가능) 등을 갖췄다.

처음 만나는 곳은 금강송테마전시관이다. 공평 공사 현장을 재현한 모형을 비롯해 금강소나무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전시품이 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코너는 가상현실 체험기. 헬기를 타고 산불을 진화하는 과정을 게임처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수련동은 복층 구조와 단층 독립 공간, 2인실부터 4인실까지 다양한 숙박 시설을 갖췄다. 방에 들어서면 일찌하고 상쾌한 소나무 향이 콧속으로 스며든다.

술향비누 만들기, 뽕소 만들기, 해설사와 함께 금강송체험길을 걷는 숲 치유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울진 금강송 에코리움

찻집방과 스키에서 느긋한 시간을 보내도 된다. '리; 버스(Re;Birth) 스테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평일 8만원, 주말(금·토요일) 10만원으로 금강송에코리움의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숙박과 식사 포함).

◇미술 작품이 이렇게 재밌었나? 부산현대미술관

긴 여정을 마치는 낙동강 끝자락엔 새가 많고 물이 맑은 섬' 을속도가 있다. 자연의 섭리로 태어나 생태계의 보고가 된 을속도. 이제는 미술 작품을 만나러 오는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 6월 개관한 부산현대미술관은 생태계의 보고인 을속도에 세워진 만큼 뉴미디어 아트를 포함한 현대 미술을 중심으로 자연과 생태를 주제로 한 전시를 주요하게 다룬다.

개관 당시 '수직 정원의 거장' 패트릭 블랑의 작품으로 조성한 건물 외관이 큰 이목을 끌었다.

현재 전시 중인 '랜덤 인터내셔널 : 아웃 오브 컨트롤'의 설치 작품 '레인 룸'도 입소문을 타고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레인 룸'은 물이나 옷이 젖지 않고 빗속을 걸어보는 관객 체험형 작품으로, 미술 작품을 보는 데서 즐기는 것으로 바뀌었다.

부산현대미술관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6시(월요일, 1월 1일 휴관)이며, 금·토요일은 오후 9시까지 연장한다. 관람료는 무료다(기획전이나 특별전 등 일부 전시는 유료).

뉴스1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